

<국내학술대회 발표용>

대학생 창업을 통해 본 중국경제의 동태적 잠재력

은중학
국민대 국제학부 조교수

<국문요약>

중국경제의 동태적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중국의 젊은 지식계층이 이끌어 가는 ‘창업’에 있다고 보고,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였다. 특히 창업을 기존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균형점으로의 수렴을 촉진하는 ‘커즈너리언 창업’과, 기존의 시장 판도를 뒤바꾸어 균형점을 새로이 설정하는 ‘슈페터리언 창업’으로 구별하고, 실제 중국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것들 중 어느 것에 가까운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 대학생들의 그와 같은 창업 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내의 창업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베이징과 상하이 소재 대학생 4백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자기만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향이 강한 학생에서 슈페터리언 창업을 지향하는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조직적 특성 측면에서는 ‘국가급 중점대학’에서 더 약하게 그리고 민관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지리적 및 인지적 공간 특성 측면에서는 베이징보다 상하이에서, 혁신의 모티브를 과학기술의 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을 때, 주변의 관련 기업에게서 창업에 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 기관의 창업지원은 슈페터리언 창업이 아닌 커즈너리언 창업을 촉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본고는 이와 같은 발견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주제어: 창업, 기업가정신, 커즈너리언, 슈페터리언, 대학생, 중국

I. 서론

기존의 산업 지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에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양만을 증대시키는 방식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미개척의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그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구현하고자 하는 혁신적 노력이 빛을 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가치사슬 하단의 ‘시장’에서든, 상단의 ‘과학기술’에서든 새로운 시장기회를 포착하여 그를 구현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발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 지형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며 성장을 지속하게 하는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기존의 기업조직 내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지만, 보다 대표적인 양식은 역시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다.

중국은 지난 한 세대에 걸쳐 고도성장을 지속해왔고, 2008년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고도성장이 토지,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증가에 크게 의존한 것이고, 그러한 양적 성장 과정에서 환경과 에너지원에 대한 부담이 점차 가중되어 미래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국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창업 관련 현상에 주목하며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칭화대학교(清華大學)는 창업에 관한 국제적인 협업 조사 프로젝트인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의 중국측 수행주체로서 2002년 이래 중국 내 창업에 관한 보고서 『全球創業觀察中國報告』(이하 『창업관찰중국보고』로 약칭)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인 18~64세 중 창업 관련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비중을 나타내는 ‘창업활동지수’가 2002년 12.3%, 2003년 11.6%, 2005년 13.7%, 2006년 16.2%, 2007년 16.4%, 2009년 18.8%로 점차 상승(2003년 예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창업활동지수는 2005년 GEM 조사대상국 35개국 중 5위로 처음으로 미국(6위)을 추월했고, 최근까지도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高建 외, 2006:4; 高建 외, 2008:11; 中國MBA網, 2010).¹⁾

중국의 창업 활동이 위와 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생계형 창업(生存型創業)’과 구별되는 ‘기회형 창업(機會型創業)’이다. 생계형 창업이란 ‘생계유지의 필요와 현실적인 조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소극적 행위

1) 주의할 것은, 창업활동지수가 국가의 혁신역량이 얼마나 강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창업활동지수는 경제의 동태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07년 기준, 창업활동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1~5위는, 태국,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순이었다. 따라서 창업활동지수의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는 비교대상 국가들의 발전정도와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미국(2007년 기준, 13위)은 여타 거의 모든 선진국들(핀란드(22위), 스위스(25위), 영국(28위), 이스라엘(29위), 덴마크(30위), 네덜란드(31위), 이탈리아(32위), 일본(35위), 스웨덴(36위), 프랑스(38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高建 외, 2008:11).

로서의 창업'을 의미하는 반면, 기회형 창업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그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서의 창업'을 의미한다. 최근 칭화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이러한 기회형 창업이 생존형 창업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그 추세는 점차 명확해져 2007년에는 기회형 창업이 60.4%, 생존형 창업이 39.6%를 기록하였다(高建 외, 2008:28).²⁾

일반적으로, 기회형 창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늘리며 고용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생존형 창업에 비해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기회형 창업은 젊은 층이 주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Wagner, 2005).³⁾ 특히 중국의 경우, 기회형 창업은 교육수준이 높은 창업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회형 창업자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유자가 50.2%에 반해, 생존형 창업자의 경우엔 그 수치가 15.7%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의 기회형 창업은 농촌보다 도시 지역에서 훨씬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高建 외, 2008:32-34).⁴⁾

요컨대, 국가경제에 대한 기대 공헌도가 높은 기회형 창업이 중국 내에서 점차 주도적인 창업 유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이끄는 주체는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창업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중국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읽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⁵⁾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조사나 분석은 중국에서조차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창업관찰 중국보고』조차도 이에 관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⁶⁾

이에 본 연구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구상하는 기회형 창업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회형 창업을 '기회의 종류'에 따라 세부 분류(후술할 '커즈너리언 창업'과 '습

2) 기회형 창업의 비중은 2002년 40.0%, 2003년 47.0%, 2005년 53.2%, 2006년 59.2%, 2007년 60.4%로 증가하였다(高建 외, 2008:28).

3) 중국(2007년 기준)에서도 기회형 창업의 경우 창업자가 25~44세인 경우가 69.4%에 달하지만 생존형 창업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60.4%에 그친다(高建 외, 2008:31).

4) 농촌지역 창업의 경우 기회형 창업과 생존형 창업이 각각 49.7%, 50.3%를 차지하며, 도시지역 창업의 경우 기회형 창업과 생존형 창업이 각각 67.3%, 32.7%이다(2007년 기준).

5) 물론 새로운 기업의 창업 빈도는 '기술 레짐(technological regime)'의 변화와 같은 길고도 불규칙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곤 한다. 1980년대 컴퓨터 혁명과 1990년대 말 인터넷 혁명 시기에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창업된 기업들이 세계 각 곳에 생겨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더불어, 한 국가의 경제에서 신생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창업의 활성화 정도만으로 국가경제를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창업의 활성화 정도는 특정 국가경제의 현재 환경과 성격뿐 아니라 미래의 동태적 변화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

6) 『창업관찰중국보고』 2007년 호는 중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창업이라는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디에 모아져야 하는지를 밝힌다는 취지의 실증 연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창업 활성화 정도를 설명한다고 밝힌 요인들이 결국 각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지표(예컨대 소비수준, 인적자본, 기술수준, 부(富)의 축적, 사영기업의 확산)일 뿐이어서 정책적 노력의 구체적인 대상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중국 내에서도 발전된 베이징, 상하이, 혹은 동부 연해 지역과 여타 지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사회경제 발전지표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만큼 2007년 호의 연구는 '기존에 잘 알려진' 지역 간 격차가 창업 활동에 있어서도 그대로 존재함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창업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다시 말해 중국 창업 활동의 주요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창업 특성과 두 지역 간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없어 이것이 지적(知的) 공백으로 남아있다.

페터리언 창업’)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기회형 창업을 촉진하는 개인, 조직, 지역(혹은 지리적 공간) 차원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도시 지역의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구상하는 창업의 유형과 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 특히 창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상하이(上海)와 그 다음으로 활발한 베이징(北京) 소재 16개 대학 400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들이 구상하는 창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⁷⁾ 또한 이와 같은 분석으로부터 발견한 중국 젊은이들의 창업 특성이 중국경제의 동태적 변화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도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장 이후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창업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여 기회형 창업을 보다 세분할 이론적 기초를 세운다. 더불어 본고의 실증적인 분석 모델 설계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정과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성격을 밝힌다. IV장에서는 II장의 이론적 기초 위에서 세 가지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한다. V장에서는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함의를 해석한다. VI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커즈너리언 vs. 슈페터리언 창업

Menger, Boehm-Bawerk, Wieser의 전통을 잇는 Mises, Hayek, Kirzner와 같은 이른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의 (때로 숨겨진) 전제와 달리, 현실 경제가 ‘이미 균형을 달성한 완전경쟁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들은 균형 상태에서 이탈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가적 탐색(entrepreneurial discovery)’을 감행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은 좀 더 균형에 가까워진다고 보았다.⁸⁾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시장을 ‘주어진 구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였고, 그 ‘시장 과정(market process)’

7) 본 연구는, 기회형 창업을 주도하는 계층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주요 도시의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층을 베이징, 상하이 소재 대학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들이 인식 혹은 구상하는 창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기업을 설립한 창업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중국의 실제 창업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기회형 창업을 주도할 계층으로 손꼽히는 대학생들의 인식과 구상을 분석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동태적 잠재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 고객의 기호와 자원에 대한 접근, 기술적 가능성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업가적 탐색이 항상 시장 균형을 신속하게 이뤄내는 것은 아니다. 균형에 도달하는 경로가 직선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인간 행위에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다만, 종전의 인간적 오류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시정(그리고 이를 통해 이윤추구)하려는 다수 시장참여자의 노력과 경쟁 및 그에 따른 변화는 균형에 가까워지는 방향(equilibrative direction)으로 진행되는 경향(equilibrative tendency)이 있다는 것이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의 주된 생각이다(Kirzner, 1997:70-72).

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기업가(entrepreneur)’에 주목해왔다.⁹⁾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기업가들의 ‘상상력(imagination)’과 ‘대담함(boldness)’, 그리고 그러한 시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기존에 없던) ‘놀라운 것(surprise)’을 동태적인 시장 과정의 핵심적 요소들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시장의 불완전함이 메워 지고 균형으로 수렴한다고 보았다(Kirzner, 1997:64).

한편, Schumpeter(1934, 1942)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논의에서 사실상 누락된 기업가의 역할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기존의 시장 판도를 깨는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혁신(innovation)’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시 말해, Schumpeter는 기업가적 행위의 요체를 ‘시장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균형으로 수렴시키는 것’에서 찾기보다는 ‘기존의 시장 질서를 재편하여 장기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¹⁰⁾

이상과 같은 이론적 관점의 차이를 바탕으로 Shane(2003)은 창업 과정에서 기업가가 활용하는 이른바 ‘기업가적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y)’를 (현재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요 인물인 Kirzner의 이름을 인용하여) ‘커즈너리언 기회(Kirznerian opportunity)’와 ‘슈페터리언 기회(Schumpeterian opportunity)’로 대별하였다.¹¹⁾ 그에 따르면, 커즈너리언 기회를 발견·활용한 창업은 기존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균형점으로의 수렴을 촉진하는, 혁신성이 비교적 낮은 창업이며, 슈페터리언 기회를 발견·활용한 창업은 기존의 시장 판도를 뒤바꾸어 균형점을 새로이 정의하는, 혁신성이 비교적 높은 창업이다.

위와 같은 Shane의 분류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들이 구상하는 창업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그것이 ‘커즈너리언 창업’에 가까운지 아니면 ‘슈페터리언 창업’에 가까운지를 잣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Schumpeter의 뒤를 이어 혁신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는 이른바 신(新)슈페터리언(neo-Schumpeterian) 경제학자들(예컨대 Freeman and Soete, 1997)은 기존의 시장 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근본적(fundamental)’ 혹은 ‘급진적(radical)’ 혁신 외에 ‘점진적(incremental)’ 혁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들의 논의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Shane도 혁신에는 ‘창조적 파괴’에 못 미치는 보다 온건한 것이 있으며, 그들은 커즈너리언 기회를 활용한 창업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커즈

9) 단, 이것이 소수의 기업가에게로 관찰과 분석의 초점을 좁혔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Mises (1949:253-255)는 ‘기업가(entrepreneur)’를 ‘시장 정보의 변화에 대응하여 활동하는 사람(acting man in regard to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data of the market)’으로 매우 폭넓게 정의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실생활 경제에서 모든 행위자는 항상 기업가이다(In any real and living economy every actor is always an entrepreneur.)”라고 논한 바 있다.

10) Schumpeter(1939)는 25~30년에 걸친 장기 경기순환 이른바 콘드라티에프(Kondratieff) 사이클을 결정짓는 것도 (근본적) 혁신이라고 인식하였다.

11) ‘기업가적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y)’란 기업가가 가용한 자원을 새롭게 재조합할 수 있는 ‘수단과 목적의 틀(means-ends framework)’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을 의미한다. ‘커즈너리언 기회’는 과거의 의사결정자들이 실수를 저질렀거나 무언가를 빠뜨려 시장에 과잉이나 부족이 있을 경우 생겨나며, ‘슈페터리언 기회’는 기술적 변화, 정치·규범적 변화, 사회·인구학적 변화 등으로 인해 생겨난다(Shane, 2003:18-23).

너리언 창업과 슈페터리언 창업의 구분은 혁신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혁신의 정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의 다양한 창업들을 커즈너리언 창업과 슈페터리언 창업으로 쉽게 양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커즈너리언 창업과 슈페터리언 창업을 연속적인 스펙트럼 상의 양극단으로 인식하고 그 사이에서 개별 창업의 성격을 파악하려고 한다.

2. 창업 연구의 접근법

Shane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의 발현 및 창업 행위에 대한 기존 학계의 연구는,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는 유파(Khilstrom and Laffont, 1979; Schere, 1982; McClelland, 1961)와 외부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유파(Tushman and Anderson, 1986; Acs and Audretsch, 1990)로 나뉘어, 창업 행위를 설명할 다양한 요인들을 한데 아우르는 종합적·통합적인 연구가 부족했다(Shane, 2003:2-3).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일련의 학자들은 기업가의 창업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보다 복합적(complex)이고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Julien, 2007; Shane and Venkataramen, 2000; Shane, 2003; Steyaert and Hjorth, 2003).

그 중에서도 Julien(2007:8-11)은 ‘경기순환 속에서 합리적인 개인이 선택하는 행위’라는 순수 경제학적 혹은 신고전학파적 관점만으로는 기업가적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업이 활성화된 정도가 지역에 따라 다름에 주목하고, 이는 창업 활동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로부터 내생적으로 배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에 기초하여 그는, 기업가적 행위를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회심리학적 접근과 조직,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회경제학적 접근을 병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한 이와 같은 학제적 접근법은 현대 중국의 창업 활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 현대 중국의 기업가정신 발현과 창업 활동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향진기업(鄉鎮企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진기업은 1980년대에 중국 농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등장하여 당시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는데, 이들은 성격상 비(非)국유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향(鄉) 혹은 진(鎮) 정부의 보호와 원조 속에서 발전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 까닭에 Oi(1992, 1995)는 ‘지방 차원의 국가조합주의(local state corporatism)’, Hubbard(1995), Cheah(2000) 등은 ‘지방정부의 기업가정신(local government entrepreneurship, governmental entrepreneurship)’이란 개념을 갖고 향진기업 현

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Julien(2007:258)은 시장(market)의 원활한 작동을 전제로 기업가 개인의 역할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상을 설명하였다.¹³⁾ 또한 Yang(2004, 2007)은 사회학자 Burt(1992)의 ‘구조적 틈새(structural hole)’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향진기업의 기업가는 한편으로는 (지방) 정부 및 국유부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과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독특한 중간자적 위치(즉, 구조적 틈새)에 있어 이 위치를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요컨대, 중국 내 향진기업의 등장과 발전을 기업가정신의 발현 혹은 창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들은 기업가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네트워크와 지역의 특성까지를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은, 농촌 중심의 향진기업 연구를 넘어, 상하이, 베이징 등 도시 지역에서의 창업 현상에 대한 연구(Wu, 2002; Zhou and Xin, 2003)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 소재 중국 대학생이 구상하는 창업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대학생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 즉 ‘대학’의 특성과 함께, 공간적 특성까지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것이다.¹⁴⁾ 하지만 그러한 다면적(多面的) 접근법을 최종 수용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창업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로 (기업가 개인의 특성 외에) 조직과 공간의 특성을 추가하는 것이 실제로 모형의 설명력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는, 다면적 접근법을 제안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III. 자료의 수집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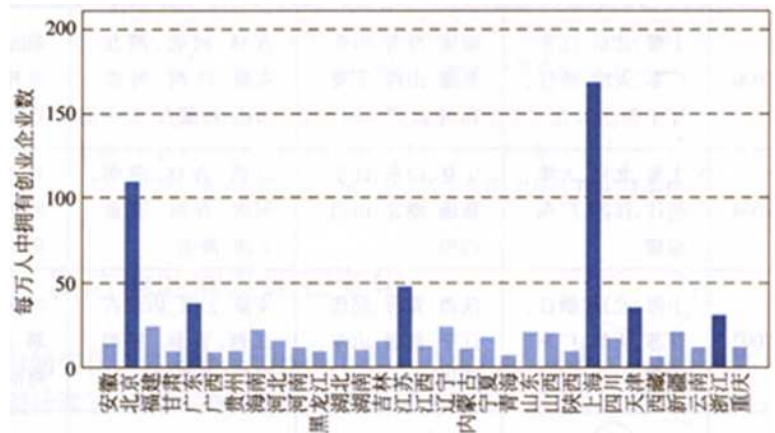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회형 창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젊은 지식계층의 창업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경제 속에 내재된 역동성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본 연구의 특징은, 실제 창업 활동을 수행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수집·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젊은 지식계층이 창업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 중국경제의 동태적 잠재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하이와 베이징 소재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08년 출간된 『창업관찰중국보고』에 따르면 상하이와 베이징은 ‘사영기업 창업지수’(인구 1만 명당 창업기업 수)가 각각 중국 내

13) Cheah(1993, 2000)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전통을 따라, 기업가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순과 빈 틈, 부조화를 찾아내 그를 보완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적응형 기업가정신(adaptive entrepreneurship)’이라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화교와 중국 내 기업가들의 지방정부의 유도 하에 수행한 창업 행위를 설명하려 하였다(Li and Matlay, 2006:256).

14)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지리적 공간만을 상정하지 않고, 중국 대학생들이 사고하고 행동을 기획하는 인식의 공간, 즉 인지적 공간까지를 고려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본 연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1위와 2위로 창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고(<그림 1> 참조), 중국에서 대학생은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자료: 高建 외(2008:65)

<그림 1> 중국 각 지역의 사영기업창업지수(2006년 기준)

상하이와 베이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우선, 각 도시의 대표적인 국가급 중점대학 2곳과 일반 공립 대학 3곳을 선정하고 그에 더해 사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민판(民辦)대학’을 2곳씩 추가하였다. 이는 대학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창업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렇게 두 도시의 16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자세한 설문대상은 <표 1>을 참조).

<표 1> 설문조사 대상

도시	대학유형		대학명	표본수	합계
베이징	중점 • 공립		清華大學	34	100
			北京大學	33	
			中國人民大學	33	
	비 중 점	공립	北京建築工程學院	20	60
			北京第二外國語學院	20	
			首都師範大學	20	
		사립	北京城市學院	20	40
			北京培黎職業學院	20	
상하이			중점 • 공립		上海交通大學
	復旦大學	34			
	華東師範大學	33			
	비 중 점	공립	上海第二工業大學	20	60
			上海工程技術大學	20	

15) 상하이, 베이징에 이어 사영기업창업지수가 높은 장쑤(江蘇)성, 광둥(廣東)성, 톈진(天津)시, 저장(浙江)성 등 6개 지역과 나머지 23개 성시(城市) 간의 사영기업창업지수 격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특히 2002년 이후에는 빠르게 확대되었다(高建 외, 2008:67). 따라서 상하이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본고의 분석 결과는 중국 내 창업활동이 활발한 도시지역에는 무리 없이 일반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까지 일반화하는데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5개 문항의 응답점수를 합산해 최저 5점에서 최고 20점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국 대학생이 구상하는 창업이 커즈너리언 창업에 가까울수록 그 값은 크고, 슈페터리언 창업에 가까울수록 그 값은 작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 지표를 ‘Kirzner-Schumpeter 지수’로 명명하며, 이를 회귀분석에 있어 피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파악한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성향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성향이 오로지 개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적 관점에 따른 ‘개인 특성 모형’(모형1)이다. 기존의 연구와 필자의 추론을 바탕으로 개인 특성 모형에는 ‘성별’, ‘전공’, ‘자기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향’, ‘공산당 혹은 공청단 활동 경험’, ‘직장 경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는, 남녀에 따라, 전공 분야에 따라, 독립심의 정도에 따라 창업 성향이 다를 수 있으며, 더불어 공산당 혹은 공청단 활동을 통해 정치적 리더십을 연마할 기회가 있었던 학생과 그런 기회가 없었던 학생, 직장 경험을 통해 실제 경제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도 창업 성향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설명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성격은 아래 <표 3>에 보는 바와 같다.

<표 3> 개인 특성 모형(모형1)의 설명변수들

설명변수	변수이름	변수성격	비고
성별	male_d	더미	남=1, 여=0
전공	scieng_d	더미	이공계=1, 여타전공=0
자기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향	ownwish	연속	Likert scale 1~5
공산당 혹은 공청단 활동 경험	party_d	더미	있다=1, 없다=0
직장 경험	career_d	더미	있다=1, 없다=0

두 번째 모형은,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성향이 오로지 개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를 고려한 ‘개인+조직 특성 모형’(모형2)이다. 이 모형에는 위 <표 3>에 소개된 설명변수 외에 설문응답자가 소속된 조직, 즉 대학의 특성이 설명변수로 추가되었다. 대학의 특성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급 중점대학 여부’와 ‘사립대학 여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가급 중점대학은 중국 중앙정부(교육부) 직속 대학들로, 현실적으로는 중국 내 명문(주로 연구중심) 대학을 지칭한다. 한편, 중국 내에도 국내외 민간 자본에 의한 사립대학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의 운영방식이나 대학 문화는 기존의 국공립 대학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조직 특성 모형’의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표 4> 참조).

<표 4> 개인+조직 특성 모형(모형2)에 추가된 설명변수들

설명변수	변수이름	변수성격	비고
국가급 중점대학 여부	key_univ_d	더미	중점대학=1, 기타=0
사립대학 여부	prv_univ_d	더미	사립대학=1, 기타=0

그런데 중국의 국가급 중점대학은 그 정의상 모두 국립대학인 까닭에 비록 모든 국립대학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급 중점대학 여부와 사립대학 여부는 개념적으로나 실제로 수집한 자료에 대한 상관분석(부록2 참조)을 통해보나 상호 연관성이 높은 변수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동시에 하나의 회귀모형에 설명변수로 넣을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의 ‘개인+조직 특성 모형’은 국가급 중점대학 여부를 변수로 추가한 모형(모형2-1)과 사립대학 여부를 추가한 모형(모형2-2) 두 가지를 포괄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형은, 두 번째 모형인 ‘개인+조직 특성 모형’에 추가적으로 설문응답자가 속한 ‘공간’의 특성까지를 고려한 ‘개인+조직+공간 특성 모형’(모형3)이다. 여기서 공간이란, 물리적으로 국한된 지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구상하는 사람이 창업에 관한 지식과 영감을 받아들이거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인지 공간(cognitive space)’(Newby, 2001)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조직+공간 특성 모형’에는 ‘지리적 공간의 차이(베이징 vs. 상하이)’와 함께, 창업 활동을 구상하는 중국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지 공간에 관한 변수들(즉, 창업 구상에 ‘모티브를 제공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들이 가용한 것으로 인식하는 ‘창업 활동의 동업자’들은 누구인지, ‘창업의 자금원’과 ‘창업의 지식원천’은 어떤 곳인지)도 설명변수로 추가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 구상에 모티브를 제공한 곳’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 ‘제도 및 법률 환경의 변화’ 및 ‘사회 분위기 및 소비수요 변화’)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그 중요성을 리커트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¹⁷⁾

한편, ‘창업 동업자’와 ‘창업 자금원’ 소재에 관한 변수는 설문응답 결과를 그대로 변수화하지 않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구해지는 요인점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원래 설문조사에서는, ‘창업 활동을 함께 할 만 한 동업자’로 (1)친척 (2)동향 (3)동창 (4)산업관계자 (5)정부관계자 등 5종류의 동업자를, ‘중요한 창업 자금

17) 이 세 가지는 사실 Shane(2003:23)이 ‘슈페터리언 기회’의 세 가지 원천으로 제시했던 것(즉, 기술적 변화, 정치·규범적 변화, 사회·인구학적 변화)을 부분 수정한 것이다. 즉, 본고에서는 Shane이 ‘슈페터리언 창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제시한 세 가지 원천을 슈페터리언 창업 유형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Kirzner-Schumpeter 지수의 크고 작음을 설명할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우선 실제의 창업을 많은 경우 슈페터리언 창업과 커즈너리언 창업 중 하나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둘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적 스펙트럼 상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Shane이 슈페터리언 기회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커즈너리언 창업이 아닌) 슈페터리언 창업에서만 활용되는지를 실증해보기 위함이기도 했다. V장에서 상술할 계량분석 결과를 미리 살펴보면,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을 창업 모티브로 활용하는 경우는 슈페터리언 창업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나머지 두 가지 모티브는 슈페터리언 창업과 커즈너리언 창업 중 어느 하나에만 배타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원'으로는 (1)친척 (2)동향 (3)동창 (4)사적대출 (5)민영은행 (6)국유은행 (7)외자은행 (8)중국계 벤처캐피탈 (9)외국계 벤처캐피탈 등 9종류의 자금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다수의 선택지들을 질적으로 축약하여 변수화하기 위해 위의 두 가지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성분을 2개씩을 추출하였다(<표 5>, <표 6> 참조).

<표 5> 창업 동업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성분*	
	1	2
친척	.335	.783
동향	.297	.793
동창	.628	.025
산업관계자	.651	-.516
정부관계자	.773	-.230
성분 해석:	전문적 2차 관계인	개인적 1차 관계인

* 성분은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것만 표시

<표 6> 창업 자금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성분*	
	1	2
친척	.380	.641
동향	.461	.564
동창	.446	.608
사적대출	.473	.214
민영은행	.710	-.036
국유은행	.578	-.046
외자은행	.686	-.329
중국계 벤처캐피탈	.675	-.417
외국계 벤처캐피탈	.669	-.473
성분 해석:	공식·제도적 금융	비공식·사적 금융

* 성분은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것만 표시

이상과 같은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동업자에 관해서는 친척·친구 등 1차 관계인을 넘어 2차 관계인(산업 및 정부 유관부문 인물 등)까지 중요한 동업자로 인식하는 정도(<표 5>의 제1성분에 해당하는 요인점수)를 설명변수로 삼았다. 또한, 창업 자금원에 관해서는 친척·친구 등에게서 돈을 꾸는 비공식·사적 금융이 아니라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공식·제도적 금융을 중요한 자금원으로 인식하는 정도(<표 6>의

제1성분에 해당하는 요인점수)를 설명변수로 삼았다.

‘창업의 지식원천’과 관련해서는 대학·연구소, 유관 기업, 중앙 및 지방정부 등 3 종류의 기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응답자가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한 것을 설명변수로 삼았다. 여기서 필자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한 종류(커즈너리언 vs. 슈페터리언)의 창업’을 촉진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일찍이 Cheah(2000)는 중국 기업가들이 (지방) 정부의 유도 하에서 수행한 창업은 많은 경우 기술적으로 이미 성숙한 산업에서 브랜드가 없는 범용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고 지적함으로써 중국의 창업 조력자인 (지방) 정부와 커즈너리언 창업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암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시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어떠한 종류의 창업을 촉진하고 있는지 실증해보고자 한다.

요컨대, 개인+조직+공간 특성 모형에 추가되는 설명변수는 <표 7>에 보는 바와 같다. 이 세 번째 모형은 앞서 두 번째 모형의 확장인데, 두 번째 모형이 두 가지의 하위 모델들(모형2-1, 모형2-2)을 갖고 있어 그에 기반을 둔 세 번째 모형 역시 두 가지의 하위모델들(모형3-1, 모형3-2)을 갖는다. 참고로 본고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부록1>에 나열하였다.

<표 7> 개인+조직+공간 특성 모형(모형3)에 추가된 설명변수들

공간성격	설명변수		변수이름	변수성격	비고
지리적	지역간 차이 (베이징 vs 상하이)		beijing_d	더미	Beijing=1, Shanghai=0
인지적	창업 모티브 제공처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	opp_st	연속	Likert scale 1~5
		제도 및 법률 환경의 변화	opp_inst	연속	Likert scale 1~5
		사회분위기 및 소비수요 변화	opp_soci	연속	Likert scale 1~5
	창업 동업자 소개	전문적 2차 관계인 활용도	part_professional	연속	요인점수
	창업 자금원 소개	제도권 금융 활용도	fund_institutional	연속	요인점수
	창업 지식원천 기관	대학·연구소	orgsup_univ	연속	Likert scale 1~5
		유관 기업	orgsup_firm	연속	Likert scale 1~5
		중앙 및 지방 정부	orgsup_gov	연속	Likert scale 1~5

V. 회귀분석 결과의 해석

앞 장의 모형 설계에 따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보는 바와 같다. 우선, 표 하단에 보는 바와 같이 모형1(개인 특성 모형)에서 모형2(개인+조직 특성 모형), 다시 모형3(개인+조직+공간 특성 모형)으로 옮겨갈수록 ‘수정된 R 제곱(adjusted R-square)’의 값이 증가해 모형의 설명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성향은 개인 특성 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고 있는 대학의 특성, 더 나아가 그들이 접하는 공간의 특성까지를 고려할 때 더 잘 설명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II장 2절에서 논의한 다면적 접근법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8>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2-1		모형2-2		모형3-1		모형3-2	
	β	표준 오차	β	표준 오차	β	표준 오차	β	표준 오차	β	표준 오차
male_d	-.171	.305	-.211	.306	-.164	.305	-.031	.301	-.024	.300
scieng_d	-.400	.308	-.342	.310	-.440	.308	-.282	.299	-.423	.297
ownwish	-.316**	.130	-.317**	.129	-.316**	.129	-.284**	.126	-.270**	.125
party_d	.047	.366	-.087	.376	-.077	.372	-.099	.358	-.133	.356
career_d	.217	.350	.334	.358	.281	.351	.113	.341	.067	.334
key_univ_d			.484	.313			.519*	.300		
prv_univ_d					-.643*	.381			-.879**	.374
beijing_d							.678**	.298	.642**	.297
opp_st							-1.168***	.219	-1.180***	.218
opp_inst							-.255	.193	-.227	.192
opp_soci							.181	.189	.128	.191
part_professional							.012	.163	-.030	.164
fund_institutional							.167	.167	.205	.166
orgsup_univ							-.274	.179	-.260	.178
orgsup_firm							-.462**	.188	-.527***	.188
orgsup_gov							.312*	.175	.288*	.173
상수	14.001***	.518	13.758***	.541	14.157***	.525	20.041***	1.552	20.972***	1.551
수정된 R 제곱	.010		.014		.015		.121		.127	

참고: * $p < 0.1$, ** $p < 0.05$, *** $p < 0.01$

이제, <표 8>의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설명변수들이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자. 우선, ‘스스로 자기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향’이 강한 학생일수록 커즈너리언 창업보다는 스펀터리언 창업을 구상하는 경향이 높음이 드러났다(<표 8>의 ownwish행 참조). 이는 기존의 시장 혹은 경제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성격의 스펀터리언 창업은 독립적 성향의 인물들이 주도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창업 성향은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8>의 male_d행 참조). 그리고 공산당 혹은 공청단 가입 여부나 직장 경험 여부도 중국 대학생의 창업 성향을 어느 한 방향(즉, 커즈너리언 혹은 스펀터리언

창업)으로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의 party_d, career_d행 참조). 이는 공산당 혹은 공청단 활동을 통한 정치적 리더십 훈련과 창업 혹은 기업가정신의 발휘 사이에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관련성은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장 경험은 비록 그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창업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라도 경험의 유무 자체가 창업 성향을 어느 한쪽으로 이끄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모든 회귀모형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¹⁸⁾

다소 의외의 결과는 모든 회귀모형에서 이공계 학생과 여타 전공(인문·사회·경상계 포함) 학생 간의 창업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표 8>의 scieng_d행 참조)이었다. 이공계 학생의 경우 새로운 과학기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 그를 활용한 창업 구상이 스페터리언 창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도 추론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공계 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스페터리언 창업을 촉진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형3에 추가된 ‘창업의 모티브를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에서 찾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스페터리언 창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의 opp_st행 참조). 이 두 가지 발견을 종합해보면, 학생이 이공계 전공자 여부의 객관적 신분보다는 학생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변화에서 창업의 모티브를 찾을 수 있는 정도, 즉 창업과 관련된 인지 공간의 특성이 창업 성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베이징이 상하이에 비해 (스페터리언 창업이 아닌) 커즈너리언 창업에 경도되어 있다는 회귀분석 결과(<표 8>의 beijing_d행 참조)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듯하다.¹⁹⁾ 일반적으로 과학 연구의 양과 수준에 있어 베이징은 상하이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스페터리언 창업이 베이징보다 상하이에서 더욱 활발하다는 <표 8>의 회귀분석 결과는 의외일 수 있지만, 이는 상하이의 창업 문화가 베이징보다 더욱 혁신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공계 여부’보다 ‘혁신의 모티브를 과학기술 변화 속에서 얻는 정도’가 창업 성향을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발견과 일맥상통한다.

대학생들이 속한 조직, 즉 대학의 특성을 감안한 모형에서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사립대학은 여타 대학에 비해 스페터리언 창업을 촉진하는 문화가 유의미하게 강하다는 점이다(<표 8>의 prv_univ_d행 참조). 반면에 명문대학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급 중점대학은 스페터리언 창업보다는 오히려 커즈너리언 창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의 key_univ_d행 참조). 이는 중국 사립대학의 문화가 파격적인 혁신을 행하는 창업(즉, 스페터리언 창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중국의 명문 대학인 국가급 중점대학의 문화는 그보다 보수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 단, 이는 설문응답자 400명 중 (일반적인 대학졸업 연령인) 25세 이상의 학생이 25명뿐이고 그들 역시 모두 30세 이하로 짧은 취업 경험만을 갖고 있는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어 이 점에 있어서는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19) 2009년 기준, 베이징 소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각각 131,184명, 130,687명으로 상하이의 74,540명, 39,136명보다 훨씬 많다(國家統計局·科學技術部, 2010).

한편,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인지공간에 관한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제도 및 법률 환경의 변화’ 혹은 ‘사회분위기 및 소비수요 변화’에서 창업의 모티브를 얻는 정도는 중국 대학생의 창업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의 opp_inst와 opp_soci행 참조). 또한, 중국 대학생들이 구상하는 창업 동업자 중 ‘전문적 2차 관계인 활용도(<표 8>의 part_professional행 참조)’와 창업 자금원 중 ‘제도권 금융 활용도(<표 8>의 fund_institutional행 참조)’ 역시 중국 대학생의 창업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인지공간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중국 대학생들이 창업 관련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주된 기관이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기관으로 대학·연구소, 유관 여타 기업,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 등 세 곳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표 8>의 orgsup_firm, orgsup_gov, orgsup_univ행 참조)는, 중국 대학생들이 창업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관련 ‘기업’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스펀터리언 창업과 연결되는 경향이 큼을 보여준다. 반면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서비스 센터들은 대학생들의 스펀터리언 창업을 촉진하기 보다는 커즈너리언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혁신지향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있어 정부기관이 뒷받침하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활동이기보다는 다소 보수적이거나 점진적인 형태의 활동(즉, 커즈너리언 창업)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얻는 정보나 아이디어는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구상을 스펀터리언 창업으로 약간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VI. 논의와 결론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동태적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중국의 젊은 지식계층이 이끌어 가는 ‘기회형 창업’에 있다고 보고,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였다. 특히, 기회형 창업을 기존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균형점으로의 수렴을 촉진하는 커즈너리언 창업과 기존의 시장 판도를 뒤바꾸어 균형점을 새로이 정의하는 스펀터리언 창업으로 대별하고, 실제 중국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그들의 추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중국의 젊은 지식계층이 주도할 미래 창업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동태적 변화를 부분적으로나마 가늠해보기 위함이었다.

중국에서 창업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하이와 베이징 소재 각급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실

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중국에서 기존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어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쉘페터리언 창업을 구상하는 이는 단순히 이공계에서 과학기술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변화 속에서 창업의 모티브를 찾을 수 있는 인지공간을 가진 학생이란 점이다. 이와 더불어 살펴볼 또 하나의 사실은, 과학연구 활동이 더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보다 상하이에서 쉘페터리언 창업이 더 촉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단순히 과학연구 활동을 늘리거나 이공계 신분의 학생 수를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장기에 걸친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낼 쉘페터리언 창업을 촉진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쉘페터리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도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과학기술을 사회경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재의 배양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중국의 명문대학, 혹은 연구중심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급 중점대학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은 더 모험적인 쉘페터리언 창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중국 대학 내에서 정치적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는 공산당 당원들도 모험적인 쉘페터리언 창업을 촉진하는데 있어서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들은 혁신성이 높은 쉘페터리언 창업이 아니라 혁신성이 낮은 커즈너리언 창업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중국 사회의 이른바 주류(主流) 혹은 선도적 지위에 있는 계층 혹은 주체(중점대학, 공산당, 정부)가 스스로 창조적 파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못함을 암시한다. 중국의 수도(首都), 베이징이 보여주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혁신성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기득권층으로서의 그들이 높은 기회비용을 감수해가면서 기존의 틀을 흔드는 혁신을 주도할 리 없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상당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중점대학들과 공산당,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촉진하는 창업이 기존의 체제를 보완하는 커즈너리언 창업에 국한된다면, 이는 그들이 담고 있는 동태적 잠재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본 연구는 창업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 특성 뿐 아니라 그가 몸담은 조직과 공간의 특성까지를 고려하는 다면적 접근법이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 대학생들이 구상하는 창업의 유형과 그 혁신성의 정도는 남녀 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발견도 있었다. 비록,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남녀 학생들이 경험하는 실제 창업 환경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현실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잠재된 동태성 면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는 여성 창업자 지원·육성에 관한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결과와 그로부터 도출한 함의와 추론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무엇보다, 제한된 규모의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 때문이다. 더욱이, 본 연구는 실제로 행해진 창업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학생들이 머릿속에 구상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창업에 관한 것이니만큼 응답자가 본인의 구체적인 구상과 인식

이 아니라 통념에 입각하여 답할 경우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조사과정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지만, 부족함이 있었을 수 있다. 대학생이 창업하고자 하는 산업 섹터를 파악하지 못해 이를 회귀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도 부족한 점으로 남는다. 대학생의 창업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 소득수준과 자산규모, 출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의 창업과 동태적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보다 엄밀하고 전면적인 연구에 앞선 예비적 연구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록 1>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kerz_sch	400	5.00	20.00	12.715	2.98766
male_d	400	.00	1.00	.548	.49836
scieng_d	400	.00	1.00	.435	.49638
ownwish	400	1.00	5.00	3.428	1.15024
party_d	400	.00	1.00	.215	.41134
career_d	400	.00	1.00	.245	.43063
key_univ_d	400	.00	1.00	.503	.50062
prv_univ_d	400	.00	1.00	.200	.40050
beijing_d	400	.00	1.00	.500	.50063
opp_st	400	1.00	5.00	4.155	.69077
opp_inst	400	1.00	5.00	3.898	.81772
opp_soci	400	1.00	5.00	4.153	.86956
part_professional	400	-2.50	1.21	.000	1.00000
fund_institutional	400	-3.49	2.55	.000	1.00000
orgsup_univ	400	1.00	5.00	3.823	.90446
orgsup_firm	400	1.00	5.00	3.943	.86664
orgsup_gov	400	1.00	5.00	3.670	.92099

<부록 2> Pearson 상관분석표

	scieng_d	ownwish	party_d	career_d	key_univ_d	prv_univ_d	beijing_d	opp_st	opp_inst	opp_soci	part_professional	fund_institutional	orgsup_univ	orgsup_firm	orgsup_gov
male_d	.170** 0.001 400	0.028 0.578 400	-.123* 0.014 400	0.027 0.585 400	0.03 0.554 400	0.028 0.582 400	-.116* 0.021 400	0.044 0.379 400	0.027 0.585 400	-.193** 0 400	-.128* 0.01 400	-0.024 0.637 400	-0.051 0.311 400	-.113* 0.024 400	-.124* 0.013 400
scieng_d		0.033 0.505 400	-0.091 0.069 400	-.136** 0.006 400	-0.095 0.057 400	-0.073 0.144 400	-0.081 0.107 400	0.051 0.305 400	0.011 0.821 400	-0.079 0.117 400	-0.05 0.323 400	-0.046 0.356 400	0.055 0.271 400	-.140** 0.005 400	-0.031 0.542 400
ownwish			-0.031 0.543 400	0.041 0.413 400	-0.013 0.799 400	0.004 0.931 400	0.028 0.573 400	0.071 0.157 400	0.079 0.116 400	.118* 0.019 400	.118* 0.018 400	0.07 0.161 400	0.078 0.12 400	0.09 0.072 400	.176** 0 400
party_d				0.056 0.267 400	.216** 0 400	-.186** 0 400	.110* 0.028 400	0.024 0.639 400	0.006 0.904 400	0.006 0.902 400	0.083 0.097 400	0.069 0.171 400	0.056 0.267 400	-0.043 0.396 400	-0.044 0.382 400
career_d					-.177** 0 400	.108* 0.032 400	.105* 0.036 400	-0.027 0.592 400	-0.014 0.781 400	0.02 0.683 400	-0.054 0.285 400	-0.01 0.84 400	-0.049 0.329 400	-0.063 0.209 400	0.002 0.966 400
key_univ_d						-.503** 0 400	0.005 0.921 400	0.028 0.578 400	0.077 0.123 400	0.042 0.399 400	.103* 0.04 400	.126* 0.011 400	0.031 0.531 400	-0.014 0.778 400	-0.08 0.111 400
prv_univ_d							0 1 400	-0.058 0.247 400	-0.06 0.234 400	-.189** 0 400	-.221** 0 400	-0.073 0.147 400	-0.068 0.176 400	-.147** 0.003 400	-0.052 0.303 400
beijing_d								-0.08 0.111 400	-0.095 0.058 400	-.141** 0.005 400	0.005 0.918 400	0.046 0.356 400	-.102* 0.041 400	-.170** 0.001 400	-.114* 0.022 400
opp_st									.210** 0 400	.152** 0.002 400	.228** 0 400	.303** 0 400	.177** 0 400	0.078 0.121 400	.116* 0.02 400
opp_inst										.339** 0 400	.249** 0 400	.300** 0 400	.199** 0 400	.207** 0 400	0.058 0.246 400
opp_soci											.341** 0 400	.210** 0 400	.235** 0 400	.288** 0 400	.248** 0 400
part_professional												.366** 0 400	.223** 0 400	.281** 0 400	.168** 0.001 400
fund_institutional													.350** 0 400	.238** 0 400	.211** 0 400
orgsup_univ														.291** 0 400	.348** 0 400
orgsup_firm															.337** 0 400

참고문헌

- 高建, 程源, 李習保, 姜彥福. 2008. 『全球創業觀察中國報告(2007): 創業轉型與就業效應』.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高建, 姜彥福, 李習保, 程源. 2006. 『全球創業觀察中國報告(2005): 基于2005年數據的分析』.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國家統計局·科學技術部 編. 2010. 『2010 中國科技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中國MBA網. 2010. “2010全球創業觀察中國報告.”
<http://www.cyease.com.cn/forum/viewthread.php?tid=11710>(2011년 12월 5일 검색).
- Acs, Z. and D. Audretsch. 1990. *Innovation and Small Firms*, Cambridge: MIT Press.
- Burt, R.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eah, H. B. 1993. “Dual Modes of Entrepreneurship: Revolution and Evolution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2(4). pp. 43–251.
- Cheah, H. B. 2000. “Raising the Dragon: Adaptive Entrepreneurship and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In Richter, F. (ed.). *The Dragon Millennium: Chinese Business in the Coming World Economy*. Westport: Quorum Books.
- Freeman, C. and L. Soete. 1997. *The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 (3rd edition). London: Pinter.
- Hayek, F. A. 1948.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Hubbard, M. 1995. “Bureaucrats and Markets in China: The Rise and Fall of Entrepreneurial Local Government.”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8(3). pp. 335–353.
- Julien, P.-A. 2007. *A Theory of Local Entrepreneurship in the Knowledge Economy*. Cheltenham: Edward Elgar.
- Khilstrom, R. and J. Laffont. 1979. “A General Equilibrium Entrepreneurial Theory of Firm Formation Abased on Risk Avers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4). pp. 719–748.
- Kirzner, I. M. 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rzner, I. M. 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E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pp. 60–85.
- Li, J. and H. Matlay. 2006. “Chinese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an Over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3(2). pp. 248–262.
-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Van Nostrand.

- Mises, L. 1949. *Human A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Newby, G. B. 2001. "Cognitive Space and Information Spa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2(12). pp. 1026–1048.
- Oi, J. 1992. "Fiscal Reform and Economic Foundations of Local State Corporatism in China." *World Politics* 45(1). pp. 99–126.
- Oi, J. 1995. "The Role of Local State in China's Transitional Economy." *The China Quarterly* 144(December). pp. 1132–1149.
- Schere, J. 1982. "Tolerance of Ambiguity as a Discriminating Variable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Best Paper Proceedings* 42. pp. 404–408.
-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mpeter, J. A. 1939. *Business Cycles: A Theoretical, Histo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apitalist Process*. New York: MacGraw–Hill.
- Schumpeter, J.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ane, S. and S. Venkataramen.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1). pp. 13–17.
- Shane, S. 2003.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The Individual–Opportunity Nexus*. Cheltenham: Edward Elgar.
- Steyaert, C. and D. Hjorth. 2003. *New Movements in Entrepreneurship*. Cheltenham: Edward Elgar.
- Tushman, M. and P. Anderson. 1986. "Technological Discontinuities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1. pp. 439–465.
- Wagner, J. 2005. "Nascent and Infant Entrepreneurs in Germany: Evidence from the Regional Entrepreneurship Monitor." *IZA Discussion Paper* No.1522.
- Wu, F. L. 2002. "China's Ehangging Urban Governance in the Transition towards a More Market-oriented Economy." *Urban Studies* 39(7). pp. 1071–1093.
- Yang, K. 2004. "Institutional Holes and Entrepreneurship in China." *The Sociological Review* 52(3). pp. 371–389.
- Yang, K. 2007. *Entrepreneurship in China*. Hampshire: Ashgate.
- Zhou, Y. and T. Xin. 2003. "An Innovative Region in China: Interaction betwee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Local Firms in a High-tech Cluster in Beijing." *Economic Geography* 79(2). pp. 129–152.